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고용 보고서 발표 경계감 속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일(목) 미 증시는 노동부 고용보고서,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발표 가능성 등을 주시하며 경계감 높아진 가운데 기술주,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실현 이후 시클리컬, 중소형주로 자금 순환에 진행된 결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다우 +0.55%, S&P500 +0.01%, 나스닥 -0.44%)

미 증시에서는 연초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실현성 매물 출회 이후 시클리컬주로 자금이 순환, 지수단에서도 대형주 주춤한 가운데 중소형주(러셀2000 +1.1%) 강세 연출. 업종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에너지(+3.2%), 필수소비재(+2.3%), 경기소비재(+1.7%) 업종은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9%), IT(-1.5%)는 하락한 가운데 2027년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로 50%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발언에 힘입어 방산주 강세.

시장은 금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차주 CPI 등 물가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흐름. 매크로 측면에서는 금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내 비농업 고용(7.0만 vs 전월 6.4만), 실업률(4.5% vs 4.6%)는 컨센서스와 극단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 그보다는 차주 발표될 CPI(13일)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지난달 발표된 11월 CPI(2.7% vs 컨센 3.1%)는 섀도우 여파에 따른 왜곡으로 데이터 신뢰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이에 차주 12월 CPI(2.7% vs 전월 2.7%)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 지표 방향성에 따른 증시 변동성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한편, 현지시간 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법원 판결 발표 여부도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흐름. 지난해 11월 보수, 진보 성향 판사 모두 관세 합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폴리마켓 기준, 트럼프 승소 확률 30% 수준에 그침). 다만,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232조,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법적 대안이 존재. 이에 따라, 금주 위법 판결이 날 경우 관세 정책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가늠하는 과정에 시장 변동성 확대될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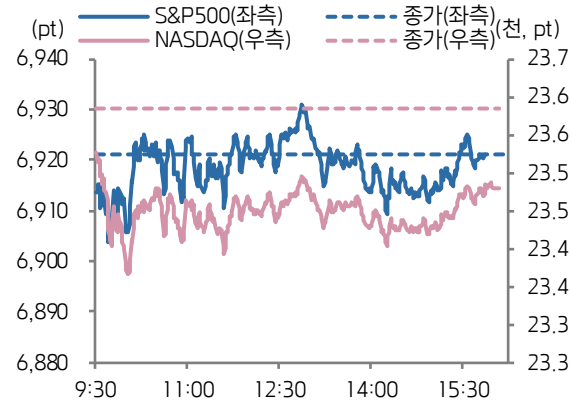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셀은 매물 출회되며 하락 출발하였으나,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자금 유입, 지정학적 긴장 수혜에 따른 조선, 방산주 랠리 속에 상승 전환. 다만, 장 후반부 차익 매물 연이어 출회된 결과 상승 폭 반납하며 양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코스피 +0.03%, 코스닥 -0.35%).

금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에서의 기술주, 반도체주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일 주가 선반영 인식 속 반도체, 방산 등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경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전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차익실현 매물 vs 저가매수 자금 유입 속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 확대되며 지수 측면에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았음. 그럼에도, 전일 조선, 방산, 헬스케어 등 이익 모멘텀 견조한 업종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해당 업종들은 양호한 흐름 연출. 금일에도 반도체 풀림 일부 완화되는 과정에서 FY26 영업이익 전망치 1개월 변화율 조선(+3.5%), IT하드웨어(+2.1%), 상사,자본재(+1.3%),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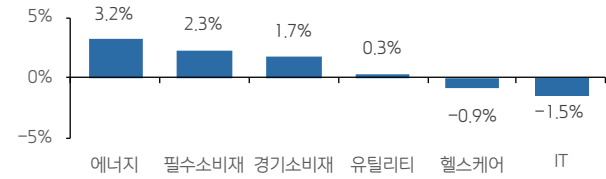
(+0.7%), 건강관리(+0.5%) 업종으로의 수급 분산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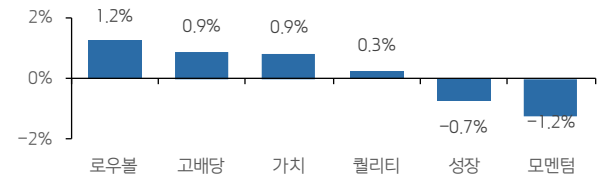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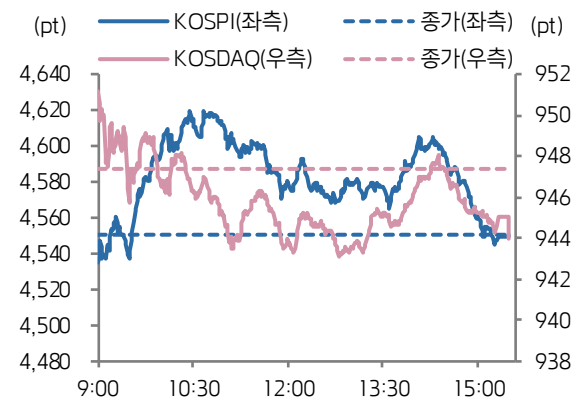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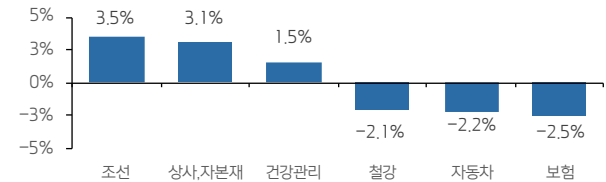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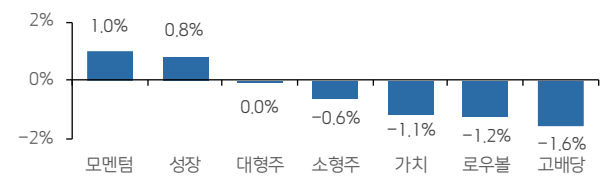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8.67	-0.64%	-4.85%	GM	84.93	+3.68%	+4.43%
마이크로소프트	478.39	-1.05%	-1.08%	일라이릴리	1,088.77	-1.74%	+1.31%
알파벳	325.15	+0.98%	+3.88%	월마트	113.24	+0.46%	+1.64%
메타	645.64	-0.47%	-2.19%	JP모건	330.26	+1%	+2.5%
아마존	246.09	+1.88%	+6.62%	엑손모빌	122.81	+3.64%	+2.05%
테슬라	435.48	+0.94%	-3.17%	세브론	159.62	+2.85%	+4.73%
엔비디아	184.76	-2.3%	-0.93%	제너럴일렉트릭	113.24	+0.5%	+1.6%
브로드컴	331.99	-3.35%	-4.08%	캐터필러	609.14	+2.11%	+6.33%
AMD	204.49	-2.63%	-4.52%	보잉	226.46	-0.73%	+4.3%
마이크론	326.16	-3.94%	+14.28%	넥스트에라	79.38	+1.3%	-1.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552.37	+0.03%	+8.03%	USD/KRW	1,451.80	+0.29%	+0.85%
코스피200	664.18	-0.05%	+9.6%	달러 지수	98.92	+0.24%	+0.61%
코스닥	944.06	-0.35%	+2.01%	EUR/USD	1.17	-0.21%	-0.81%
코스닥150	1,595.91	-0.02%	+3.14%	USD/CNH	6.98	-0.15%	+0.11%
S&P500	6,921.05	+0%	+1.1%	USD/JPY	156.98	+0.14%	+0.17%
NASDAQ	23,480.02	-0.44%	+1.02%	채권시장			
다우	49,266.11	+0.55%	+2.5%	가격	DTD(bp)	YTD(bp)	
VIX	15.50	+0.78%	+3.68%	국고채 3년	2.909	+0.2bp	-4.2bp
러셀2000	2,603.74	+1.1%	+4.91%	국고채 10년	3.345	-1.2bp	-4bp
필라. 반도체	7,436.10	-1.83%	+4.98%	미국 국채 2년	3.490	+2.1bp	+1.7bp
다우 운송	18,058.42	+1.1%	+4.04%	미국 국채 10년	4.181	+3.4bp	+1.4bp
상해종합	4,082.98	-0.07%	+2.88%	미국 국채 30년	4.854	+2.2bp	+1bp
항생 H	9,039.34	-1.09%	+1.41%	독일 국채 10년	2.863	+5.1bp	+0.8bp
인도 SENSEX	84,180.96	-0.92%	-1.2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904.32	-0.32%	+1.95%	WTI	57.76	+3.16%	+0.59%
MSCI 전세계 지수	1,031.48	-0.35%	+1.66%	브렌트유	61.99	+3.39%	+1.87%
MSCI DM 지수	4,490.24	-0.36%	+1.35%	금	4,460.70	-0.04%	+2.76%
MSCI EM 지수	1,462.97	-0.29%	+4.17%	은	75.14	-3.18%	+6.43%
MSCI 한국 ETF	106.72	-0.29%	+9.77%	구리	579.65	-1.09%	+2.02%
디지털화폐				BDI	1,776.00	-2.95%	-5.38%
비트코인	90,949.10	-0.06%	+3.77%	옥수수	445.75	-0.22%	+1.25%
이더리움	3,108.86	-1.23%	+4.4%	밀	518.00	+0%	+2.17%
				대두	1,061.25	-0.54%	+1.31%
				커피	372.35	-0.83%	+6.7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